

# 완도 어촌체험마을로 전복 따고 고동 잡으러 오세요

노화 북고리·보길 보옥리

군, 가족 여행 적지 2곳 추천

주변 가볼만한 관광지도 많아

“여행하기 좋은 청정 완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

완도군이 청정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풍부한 먹거리,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가족 여행하기에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두 곳을 추천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30여 분 정도 달리면 ‘전복의 고장’ 노화읍에 닿는다.

노화읍 북고리어촌체험휴양마을(노화읍 고막리 767-9)은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주산지답게 전복을 직접 따보고 현장에서 시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복 따기·시식 체험은 신청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체험 비용은 3만원이다.

완도 전복은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 각종 비타민과 철분, 갑술, 갑룡, 단백

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여름에는 전통 물고기잡이 방식인 ‘개매기’ 체험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노화도에서 보길대교를 지나면 보길도에 있는 보옥리어촌체험마을(보길면 보옥길 3-110)이다.

보옥리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물때에 맞춰 고동 잡이를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보길도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친환경 해변에만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예송리 해수욕장과 예송리 상록수림, 통리·중리 해수욕장, 보옥리 공룡알 해변, 망갈 전망대, 고산 운선도의 숨결이 남아있는 세연정 등이 있다.

노화읍 북고리어촌체험휴양마을의 전복 따기 체험 및 숙박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김상복 사무장, 보길면 보옥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김영란 사무장에게 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노화, 보길의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청정 완도의 바다를 체험하고, 한적한 섬에서 재충전,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노화읍 북고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주산지답게 전복을 직접 따보고 현장에서 시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복 잡이 체험 모습.

## “어린이 날 공룡과 함께”…해남군 어린이 공룡대축제

5월 5~7일 우항리 공룡박물관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

5월 어린이날 연휴기간 팍팍해남에서 어린이 공룡대축제가 펼쳐진다.

해남군은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황산면 우항리 해남공룡박물관에서 ‘2023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쿵쿵! 공룡찾아 해남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운영된다.

군은 기존 어린이날 공룡박물관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해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해남을 대표하는 봄축제로 마련했다.

축제는 공룡박물관 앞 잔디밭에 주무대와 어린이 놀이터,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3일내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룡가족 아이사랑음악회를 비롯해 해군 군악대 공연, 어린이OST 음악회 등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공룡버버 퍼레이드, 마술·서커스·드로잉·비눗방울 쇼 등이 이어진다.

또 공룡열차를 타고 천연기념물인 우항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돌아보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공

룡가족 운동회, 어린이 사생대회 등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도 공룡박물관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공룡박물관 잔디밭에는 30m 에어바운스와 레일기차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대규모 놀이 공간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룡박물관 실내에서도 무료 관람과 함께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세계적인 공룡화석지인 공룡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도 만나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오는 10월까지 1박 2일 체험 행사를 여는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매간당 고택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영광 매간당 고택서 고즈넉한 하룻밤

29일 1박 2일 체험행사 시작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에서 1박 2일 지낼 수 있는 체험이 29일부터 시작한다.

영광군은 이날부터 전남 증가회 영광지부와 영광 매간당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3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동편마을에 있는 매간당 고택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으로 알려졌다.

민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동 125칸을 지냈다. 3대에 걸친 효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역 상류층의 주택 구조와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방승인 이호재씨가 진행한다. 대한민국 전통혼례명인 백종희씨가 집례하는 ‘전통혼례식’과 인문학 강의, 고택 외손녀 축하공연, 혼례 음식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영광 매간당 고택 체험은 오는 10월28일까지 모두 7차례 진행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신안 임자대교 2년만에 통행량 100만대 돌파

신안군 지도에서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가 개통 2년 28일 만에 누적통행량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도 24호선에 위치한 임자대교는 총연장 4.99km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1766억원이 투입돼 2021년 3월 19일 신안의 12번째 대교로 개통됐다.

임자대교내 설치된 교통량 조사 시스템 누적 결과 4월 16일 기준 100만647대가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단계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임자대교 개통 이후 첫 톨림축제가 열린 지난 7일부터 10일간 7만4000여명이 대교를 통해 방문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사대교가 퍼플섬의 변화에 기여한 것과 같이 임자대교를 통해 임자도가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이 지난 12일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 더 커지고 빨라진 신안군 이동세탁 서비스

섬지역 취약계층 이불 등 세탁

2억여원 들여 차량 제작·구입

신안군은 최근 도서지역 거동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찾아가는 이동세탁 구입 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은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 소속 15개 자

회사의 공동 모금을 통해 조성된 1억700만원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26만원의 매칭 지원금을 더해 총사업비 2억3300만원을 확보하며 신규 이동세탁차량 제작·구입을 추진하게 됐다.

4.5t의 신규 이동세탁차량은 24kg 드럼세탁기 10대와 최첨단 기술의 자동급수 및 자가발전 시스템을 장착해 기존 2.5t 이동세탁차량 대비 3배 이상의 세탁량을 처리하며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2008년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세탁사업은 이동세탁차량이 읍면을 순회하며 세탁이 어려운 거동불편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이불 빨래를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연 500여명의 이불 3000여 채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명이 거주하는 낙도까지 이동세탁차량이 찾아가 세탁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 치유 프로그램 큰 인기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이 힐링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신축한 숲속의 집 12개동을 포함해 22개 객실의 숙박시설과 숲속 캠핑장 14곳이 운영되고 있다.

평일에도 빈 객실이 없을 정도로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다.

흑석산 명물 철쭉꽃이 개화하고 자연휴양림 내 나무들도 싹으로 물들면서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가족 단위 휴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도 흑석산 치유의 숲 치유프로그램과 유아숲 교육, 숲 해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업인

진도군이 오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업경영체(농업인)이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이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임차 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나 종중회의록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 부지, 정원 등 농업과 무관한 면적은 제외하고 농산물품 질관리위원회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영농 활동 준수 등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건당 총액의 5~20%를 감액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목포경찰 원룸촌·주택 밀집지역 야간 순찰

시민경찰연합회·자율방법대 합동

목포경찰서는 최근 목포시민경찰연합회·죽교동 자율방법대와 죽교동 일대에서 야간 합동 순찰을 했다.

<사진>

합동 순찰은 원룸촌과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벌였다.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강·절도 예방, 여성 안심 귀가, 청소년 선도, 범죄 취약지 발굴·개선 등을 진행했다.

목포경찰서는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 순찰과 치안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목포시민경찰연합회 및 죽교동자율방법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순찰 활동을 활성화해 다양한 지역주민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